

총선 전초전 여야 국감 주도권 혈투

與 “민생문제 검증 주력” 野 “MB정권 실정 부각”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9일 제1회 회기, 정부, 기획재정, 외교통상 위 등 13개 상임위별 감사를 시작으로 막이 올랐다.

563개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국감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등 10·26 재보선과 내년 4월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열리는 만큼 여야는 정국 주도권 확보를 위한 치열한 대결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국감 활동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 민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지역 국회의원들은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우선, 한나라당은 야권의 무차별 정치공세를 차단하면서 대학등록금·비정규직·보육·전월세·노후 등 '5대 민생문제'를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장 중 야당이 재임하는 경우 한나라당은 야당의 입장에서 철저히 국감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현 정부의 실정(失政)을 최대한 부각시키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최고위

원회의에서 “올해 국감은 오만과 독선, 승자독식과 토건사업으로 상징되는 이 정권의 낡은 역사를 끝내고 보편적 복지와 경제정의를 앞세우는 신평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이날 국감에선 사상초유의 ‘정전대란’과 최종경 지식경제부 장관의 거취, 고물가와 가계부채 급증, 저축은행 대책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기획재정부의 기획재정부 국감에서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6월말 현재 876조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계부채에 대해 “이명박 정부 들어 가계부채는 무려 246조원이나 증가해 한국경제를 위협하는 최대 뇌관이 됐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정부, 공기업, 민간기업, 가계의 부채가 모두 급증했을 뿐 아니라 각 경제주체의

상환능력도 사상 최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지식경제부에선 사상 초유의 정전 사태를 놓고 일부 의원이 최장관의 즉각 사퇴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당 조영택 의원은 “금융감독 혁신방안은 10년 전 발표된 금융감독원 혁신TF 방안, 올해 5월 금감원의 금감원 혁신방안과 주요 내용이 같다. 무성의하게 재탕하니 부실이 반복된다”고 몰아세웠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9일 오후 서울 노원구 중계동 노원구민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서울시장 경선후보자 2차 활동연설회에서 손학규 대표와 후보자들이 손을 잡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천정배, 박영선 후보, 손학규 대표, 추미애, 신계륜 후보. /연합뉴스

손 “정권말기 현상 엄정 심판해야”

“저축은행 사태 전적으로 정권·청와대 책임”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9일 정권말기 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7개 저축은행 영업정지 조치, 정전대란, 이명박 대통령 친척의 4대강 사업 관련 피소 사건 등을 거론하며 “권력형 비리와 불법, 부실 행정, 무능행정 등 정권말기 현상이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를 서

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엄정히 심판하고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도 승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어 “저축은행 사태는 전적으로 이 정권과 청와대의 책임”이라며 “저축은행 전수 조사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진 바로 그때 그 결과에 따라 분명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그럼에도 청와대 핵심

참모와 정권 실세가 개입해 퇴출 저지 로비를 벌여 이렇게 됐다”며 “정권 실세의 부정부패의 결말이 결국 국민 피해를 낳게 된 결과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자칫 나라가 마비될 뻔했던 정전대란도 이명박 정부의 국가 운영 능력 부재를 그대로 보여줬다”며 “4대강 사업도 대통령의 사촌형이 비리에 연루돼 입건 조사를 받는 등 정권 비리로 옮겨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박원순 “시민사회 기계적 종립 한계 느껴 출마”

박원순 변호사는 19일 “세상이 근본적으로 잘못되고 있는데 시민사회가 기계적 종립으로 간다는 것에 한계를 느꼈다”며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뛰어들 계획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날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기본적으로 (시민단체처럼) 비영리 단체는 비정파성이 중요하다”면서도 “이 정

부 들어서 많은 분들이 정치를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당이 꾸리는 정치와 세상에 제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범야권이 승리하고 선거를 하나의 축제로 만들면 지금까지 한 많은 일들이 빛나지 않을까 싶다”고 참여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또 “이번에 분열돼 있던 것을 통합하고 연대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하지 않겠느냐”며 “큰 배를 함께 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역할이 다르더라도 함께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 대표는 “박 변호사가 큰 리더십을 발휘해서 야권과 진보적 시민사회 모두 박 변호사의 날개가 될 수 있도록 잘해줄 것을 믿는다”고 덕담을 건넸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평가 라운지

장병완, CT연구원 정책보고서 발간

민주당 장병완(광주 남구) 의원이 이명박 정부 들어 지지부진한 문화기술연구원(CT연구원)의 조속한 광주 설립 당위성을 역설한 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장 의원은 ‘문화기술 R&D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현행 문화기술 R&D 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CT연구원의 조속한 설립 등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장 의원은 “CT연구원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문화산업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핵심 연결고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광주에 설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 하고 있다. 박주선 의원은 “동북아는 유류연합, 북미지역과 함께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3분하는 명실상부한 중심지역이 되었으나, 과거사·영토문제 등 극복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라며 “동북아 공동의 평화번영을 위한 10대 제안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당, 재보선 지방의원 후보 선출

민주당 전남도당은 지난 18일 10·26 재보선과 관련해 공직선거후보자추천 심사위원회를 열어 장성 제2선거구 도의원 후보로 이준호(42) 전 새마을운동 장성군지회 사무국장을 선출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또한 화순군 다 선거구 군의원 후보로 양정섭(46) 전 화순군수 정부비서를 뽑았다. 두 후보는 조만간 민주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시의회, 일본 인권단체와 간담회

광주시의회(의장 윤봉근)는 20일 오후 2시 의회 대회의실에서 일본 인권단체인 ‘세계인권선언 오사카연락회’ 회원 16명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시의회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광주학생독립운동, 5·18 광주민주화운동 등 광주시의 민주·인권운동의 역사를 소개한 뒤 인권지수 개발과 UN지정 인권도시 등 현재 추진 중인 광주시의 인권정책을 설명하고 관심과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박주선,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발간

민주당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은 19일 외교통상부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10대 제안’을 발간했다.

이 자료집은 지난 7월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 센터에서 가졌던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한·중·일 국제회의’에서 제안한 한·중·일의 석학들의 의견을 모았으며, 박주선 의원의 10가지 제안을 주된 내용으



한 서울시장 후보 중대고비 민주 여성후보 가산점 논란

나경원 지지율 상승 속 시민사회단체 이석연 추대

20% 부여... 후보들 “원만해결 노력”

‘박원순 바람’이 일고 있는 야권과 달리 여권 내에서는 ‘이석연 바람’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고 끝내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입당을 거부하면서 여권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선정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일부 언론이 19일 공개한 서울시장 보선 여론조사 결과, 당내 유력후보인 나경원 최고위원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며 영입 대상이자 범여권 후보를 자인하고 있는 이 전 처장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욱이 이 전 처장이 한나라당 지도부의 바람과 달리 입당을 강하게 거부하면서 일단 한나라당 내 경선을 치른 뒤 여권 후보단일화 논의가 시동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일보와 한국갤럽이 지난 17일 서울시민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범야권 후보로 유력한 박원순 변호사와의 양자 가산대결에서 나 최고위원은 37.0%, 이 전 처장은 18.7%를 얻었다. 비록, 나 최고위원은 박 변호사에 모두 뒤졌지만 이 전 처장보다는 경쟁력이 높게 나온 것이다.

문제는 김정권 사무총장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보 접수 마감일인 23일까지 이 전 처장을 기다리겠다”며 외부 인사와의 후보 단일화 경선을 추가로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전 처장의 입당을 압박하는 발언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이 전 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시민사회단체 8인회의의 가준비 중이며, 내일(20일)쯤 추대대회를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전에 여성후보 가산점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민주당 당헌 및 당규 상에는 전·현직 서울시장을 제외한 여성후보에게 20%의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에 처음으로 도전하는 박영선, 추미애 의원이 이번이 가산점을 받게 된다.

하지만 천정배 최고위원, 신계륜 전 의원 등 남성 후보들은 지나친 혜택이라는 입장이다.

여성 가산점 규정은 정치 신인처럼 취약한 여성을 배려하기 위한 것이지만 현재 경선에 나온 여성 후보들은 중진급이라는 점에서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박, 추 두 여성의원은 내심 당헌·당

규대로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에 맞다고 보고 있지만 표면적으로는 원만한 해결에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박 의원은 “아직 뚜렷하지 않은 입장을 갖지 않은 상태”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이야기를 듣고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추 의원 측은 “아직 구체적인 검토를 못했다. 의견을 두루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원칙상 규정대로 여성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만 후보 간의 협의를 통해 해결될 바라는 눈치다.

한편, 지난해 실시된 6·2 지방선거 서울시장 경선 때는 당시 한명숙 후보가 가산점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부여되지 않았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대한불교조계종 문민정사 남골당 허가번호: 제2006-1

극락전 남골당

선망부모와 당신의 묘지를 누가 관리하겠습니까?

모든 이들의 영원한 안락과 쉼터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민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 후손들의 무관심과 관리소홀 별초를 하지않아 황폐화된 묘, 때가 벗겨진 묘, 동철기를 거치며 붕괴된 묘, 개인이거주의 만연과 전통적인 집단묘 및 친족, 이웃간의 상충부조의식 해이로 전국 무언고 묘는 총 묘지 2천만기의 40%인 800만기에 달하고 있습니다.
- 비뚤한 자연재해로 인한 유실과 훼손 여름철 집중호우와 산사태로 인한 묘지 유실과 훼손은 전국적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묘지유실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신마저도 유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사신에도 해로운 매장 이장을 해본 사람들은 분분 속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이승보다 더욱 편안해야 할 사신이 나무 뿌리와 벌레, 습기의 침해로 심하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시는 장례법 조성을 멀리 떨어진 산에 도셔 거친 자연환경과 천재지변 속에 두고두고 고통받게 하는 것보다 화장을 하여 남골당에 봉안하면 언제나 깨끗하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습니다.

- 문민정사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전경

무등산 문민정사 남골당 예약 및 봉인문의 062) 228-0108, 010-5103-4004, 010-7179-0108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미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포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 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